



제 2018-134호

중국

동영상 공유앱 더우인, 해외 주요 음반제작사와 음원 이용계약으로 저작권 보호 강화

북경사무소

■ 현황

- '더우인(抖音, Tic Tok 틱톡)'은 사용자가 음악을 선택한 후 15초짜리 동영상과 여러 효과를 넣어 자신만의 영상을 편집, 공유할 수 있게 한 인공지능(AI) 기반 동영상 공유 앱으로, 2016년 9월 첫선을 보였으며, 최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젊은이들의 인기를 얻고 있음

■ 주요내용

- '더우인'은 최근 유니버설뮤직(Universal Music), 워너뮤직(Warner Music), 태합뮤직(太合音乐) 등 세계 주요 음반제작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음악의 이용권을 얻었다고 발표함
 - 이에 따르면 더우인은 향후 전 세계 주요 정품 음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, 더우인 유저에게 더욱 다양한 음악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됨
- 이와 관련 더우인은 "세계 주요 음반제작사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음원의 저작권 보호 및 음악 산업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"이라며 "이미 중국 국내의 약 800개 음반제작사와도 협력을 통해 정품 음악저작물의 보급 및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"라고 밝힘



- 더우인의 음악저작권 책임자는 “저작권 보호는 이미 쇼트클립 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”라며 “더우인은 음원 저작권 보호와 오리지널 작품의 창작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, 저작권이 플랫폼에서 더욱 잘 보호되고, 많은 이용자가 양질의 음악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우인 플랫폼의 책임이다”라고 밝힘

■ 평가

- 최근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이 두드러짐.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성장을 하고 있는 쇼트클립 산업에서 중국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‘더우인’의 발전 모델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이며, 인구 대국이자 최근 문화 소비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 적합한 서비스 상품 개발에도 관심이 필요함

■ 출처

- 중국인민광파전대망(中国广播电台网)
- http://pic.cnr.cn/pic/yc/20180810/t20180810_524327986.shtml